

信賴 받는 勞動行政

親愛하는 勞動部 公務員 여러분!

傘下任職員 여러분!

그리고 千萬 勞動家族 여러분!

希望이 넘치는 己巳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여러분 家庭에 榮光과 幸運이 가득하시기를 眞心으로 祝願합니다.

해가 바뀌고 새해를 맞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난 세월을 떨쳐버리는데 意味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覺悟를 새롭게 다짐하는데 그 참뜻이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다짐함은 보다 進就的이고 意慾的인 姿勢로 말은바 所任을 充實히 遂行하겠다는 意志의 表現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本人은 올 한해가 “信賴받는 勞動行政, 사랑받는 勞動部”로서의 새로운 位相을 定立해 가는 뜻깊은 한해가 되기를 간곡히 祈願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동안 우리 國民은 內外의 여러가지 試練과 도전을 슬기롭게 克服하여 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88서울올림픽은 成功裡에 그 막을 내렸고, 우리는 당당히 世界 4位 入賞이라는 놀라운 成果를 이룩하여 民族의 자긍심을 더한층 높였습니다.

또 새政府 出帆과 함께 提示된 北方政策도 서울올림픽 成功을 契機로 가시적 成果를 거두면서 21世紀 원대한 비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6.29 宣言以後 견잡을 수 없이 쏟아지는 欲求噴出事態속에서도 對話와 說得과 인

내를 바탕으로 착실히 民主化日程을 推進하여 왔으며, GNP 3,728 弗 3年連續 12%대의 高速成長이라는 놀라운 成果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勞動分野에서도 여러분의 意志와 力量과 知慧를 합하여 예년에 없었던 새로운 도전에 對處하여 왔다고 자긍하는 바입니다. 6.29以後 過熱분위기에 있던 勞使紛糾도 서서히 眞正國면으로 轉換되고 있으며 相當數의 紛糾는 適法節次에 따라 解決하려는 傾向이 增加하는 등 勞使自律의 健全한 交涉慣行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政府의 2次年度인 '89年을 展望해 보면 단순히 자긍심만으로 안주하고 있기에는 우리앞에 놓인 難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欲求噴出의 過激化, 集團化 傾向의 深化는 안돈된 社會秩序 維持를 拒否하고 있으며 일체의 既存秩序를 否定하는 극단적인 思考의 팽배는 오늘을 사는 우리를 매우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政府出捐 研究機關·公益機關 등 公共部門의 勞組活動이 活潑해지면서 人事權을 비롯한 經營參如의 要求가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職業病, 産業災害 등 脆弱 勤勞環境의 改善問題는 重要한 課題이며, 産業構造 改編過程에서 惹起되는 雇傭構造의 變化에 슬기롭게 對處해야 하는 것도 우리가 시급히 解決해야 할 課題입니다.

千萬 勞動家族 여러분!

우리는 지금 歷史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사랑받는 勞勤部



勞勤部長官
張永喆

정체와 퇴행이나 아니면 發展된 歷史의 主役이 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世界는 하루가 다르게 組織化, 블록화하여 갈수록 競爭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는 자칫 지난 수년에 걸친 經濟的 成果들을 한꺼번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릴지도 모를 엄청난 核分裂의 危機에 處해 있습니다.

地域間, 가진자와 못가진자, 保守와 革新, 新世代와 舊世代, 使用者와 勤勞者 式的 편가르기는 國民的 에너지를 弱화시킬 뿐입니다.

이러한 긴박한 狀況속에서 이 나라가 安定과 繁榮을 持續的으로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勞使間의 和合을 통한 產業平和를 이룩할 때 可能하다고 本人은 確信하는 바입니다.

勞·使間의 믿음과 理解의 缺如는 產業平和를 破壞하고 우리 經濟의 持續的 成長을 沮害시키며, 成長鈍化로 비롯되는 社會不安定은 결국 民主福祉社會 建設이라는 우리의 民族의 課業을 그 문턱에서 좌절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狀況에서 勞勤公務員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와 올바른 자세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자명하며, 또한 이것은 千萬 勞勤家族 여러분들의 積極的인 協助없이는 不可能하다고 本人은 생각합니다.

이런 脈絡에서 本人은 올해를 “信賴받는 勞勤行政”, “사랑받는 勞勤部”로서의 새로운 位相을 定立하는 해로 생각하고 이 目標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重點施策을 펴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本人은 생각하는 勞勤行政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勞勤問題는 本來의 人格的·複合的 性格으로 인해 나라 全體의 經濟的·政治的 社會環境과 緊密한 關係속에 놓여 있습니다.

經濟發展없이 勤勞者의 몫이 커지기만을 期待할 수는 없으며, 政治發展없이 勤勞者의 權益이 強化되기만을 바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勞勤行政도 國家全體의 立場에서 判斷하는 거시적 均衡感覺을 바탕으로 하는 생각하는 勞勤行政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 입니다.

둘째, 支援하는 勞勤行政이 되어야 합니다.

嚴格히 말하면 勞勤部는 勤勞者를 위해 存在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어두웠던 시절을 통해 成長論理, 安保優先論理에 밀려 다소간 本質的인 任務에 소홀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福祉와 分配問題에 보다 重點을 둔 새政府 意志에 따라 勤勞者의 權益保護를 위해 모든 行政的 支援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社內勤勞福祉基金制度의 法制化를 推進하고 從業員 지주제를 擴散시키며, 公共福祉施設을 持續的으로 擴充해 가겠습니다. 또 勤勞者의 權益保護나 隘路事項 聽取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職業病 및 產災豫防을 위한 勤勞環境 改善에도 持續的인 努力을 하겠습니다.

셋째는, 앞서가는 勞勤行政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작년 6.29 宣言以後 周邊與件은 급속도로 變化

하고 있습니다. 이런 急變하는 周邊與件에 부응하여 勞動行政의 현장감을 提高하기 위해서는 한발 앞서가는 勞動行政의 遂行은 必然的인 要請입니다.

現場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기 위한 民意收斂體系를 改善하겠으며, 이런 現場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徹底한 事前研究로 各種 紛糾를 事前에 豫防하고 賃金 및 勤勞條件을 改善해 가는데에 政府가 주도적 역할을 擔當하겠습니다.

또 內實있는 勞使教育으로 勞動問題에 대한 社會的 이해의 幅을 넓히고 勞使關係가 健全한 方向으로 發展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특히 産業構造變化에 부응하는 長期的인 人力需給政策을 樹立하고 未來 福祉社會를 準備하는 健康한 企業文化를 창조하기 위한, 雇傭電算網造成, 勞務管理電算化 등 基礎研究에도 많은 努力을 기울이겠습니다.

네째, 合理的인 勞動行政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勞動問題는 複雜多岐하여 일의적으로 對應하는데는 限界가 있다고 判斷됩니다.

따라서 本人은 充分한 民意收斂機能, 徹底한 勤勞監督機能, 合理的인 紛爭調整機能을 三大軸으로 하여 중적으로 機能을 專門化 시켜나갈 것이며, 狀況室 및 現場 巡廻班을 편성하여 돌발적인 事態에도 充分히 對處할 수 있는 組織合理化 作業을 強力히 推進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勞動部의 오랜 숙원이었던 組織擴大와 人力充員이 豫想되는 만큼 배가된 努力으로 成熟한 勞動行政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本人은 함께사는 勞動行政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強調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勞動現場에서 나타난 勞使의 목소리를 들을 때 불신의 “골”이 매우 깊게 패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勿論 이런 불신의 골이 勞·使·政 어느 일방의 잘못은 아닐 것이며, 또 지금와서 그 責任所在을 糾明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問題는 이 불신의 골을 허물지 않고는 産業社會의 安定은 언제 다시 허물어질지 모르는 모래성일 뿐이리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政府에서는 주도적으로 이런 不信의

벽을 허물기 위해 그동안의 外形的 安定을 目標로 하는 閉鎖的, 防禦的 勞動政策을 과감히 버리고, 좀더 積極的인 立場에서 問題를 노출시키는 開放的 자세로 새로운 勞使關係文化를 창조하는 「認識과 발상의 大轉換」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勞動公務員 여러분!

그리고 千萬 勞動家族 여러분!

6.29民主化 宣言以後 國民的 지지로 出帆한 第6共和國은 새로운 社會秩序形成과 가치창조라는 歷史的 과업의 實踐을 위하여 온 國民의 結집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佛經에 나오는 毒矢譬話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고 쓰러졌는데, 周邊사람들이 그 화살이 어디서 날아왔으며, 누가 왜 쏘았는지를 論하고 있다면 그 사이에 독이 퍼져 죽고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先賢들의 先驗的 教訓을 거울삼아 勞使問題에 있어서도 지나친 名分論을 克服하고, 어느 一方의 完勝이 아니면 完敗로 결말 지려는 極端論을 경계하면서 勞動問題를 이해하는 社會的 시각을 조절하여 어떤 合意에 도달하는 일이야 말로 우리 勞動界가 안고 있는 가장 주요한 課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社會的 合意를 바탕으로 本人은 勞使가 서로 대등한 위치에 서서 自律的으로 問題를 해결해가는 관행을 정착시키는데 모든 行政力을 경주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바이며, 勞動公務員 여러분 또한 주어진 소임과 職務遂行에 한치의 소홀함이나 錯誤가 있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己巳年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갈등과 對立속의 東西世界를 한자리에 모으게 했던 서울올림픽 성공의 역량을 자랑스러운 歷史創造의 원동력으로 活用할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새롭게 出帆한 第6共和國의 2次年度인 올해가 보다 成熟한 勞使關係 進入을 위한 元年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심기일전하여 努力합니다.

끝으로 己巳年 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 家庭에 健康과 幸福이 항상 충만하기를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